제2회 Koreatown Day – Dec. 8th

코리아타운 형성 과정의 역사적 자료

Historiography of Koreatown Forming

December 08, 2019

한인 역사박물관
Korean American History Museum

사진: 왼쪽부터 김진형 코리아타운 형성의 주역, 다음 민병용 한인 역사박물관 관장 과 LA 라성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가 LA시의회로부터 '코리아타운의 날 '제정 기념장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Photo: From the left, Dr. Gene Kim (the leader of the formation of Koreatown) Min Byung-yong (Director of the Korean History Museum) and Hwang In-sang (Vice Consul General of the LA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held a ceremony for the enactment of the Koreatown Day by the Los Angeles City Council.

한인 역사박물관
Korean American History Museum

제 2 회 Koreatown Day 를 기념하며

한인 역사박물관 관장 민병용

12 월 8 일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생일입니다.

서부시대 개척자와 같은 한인 1 세이민자들이 로스앤젤레스에 한인마을(Korean Village)를 만들겠다는 꿈 하나만을 가지고 밤낮으로 뛰었고, 오늘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자랑스러운 코리아타운을 만든지 47 년째(1972 ~ 2019)가 되는 날입니다.

반세기 역사속에 오늘 코리아타운은 한국문화와 미국이 만나는 명소입니다.

한인 역사박물관은 2018 년 김진형 초대 코리아타운번영회 회장과 함께 코리아타운의 날 제정에 앞장을 섰습니다.

제 10 지구 허브 웨슨 시의원(현재 LA 시의회 의장)에게 청원를 했고, 시의회는 12 월 5 일 Koreatown Day 라는 결의안을 15 명 시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과 전미주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코리아타운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타운을 만든 생일까지 생겼났으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가 어디 있습니까.

코리아타운에는 요즈음 50 여개의 크고 작은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 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수민족 타운이자, 한국문화가 활짝 꽃피는 1 번지입니다.

코리아타운을 만든 김진형 회장의 미래를 향한 꿈이 2022 년에는 50 주년을 맞이합니다.
당시 불모지에 코리아타운 형성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서 그때의 역사적 증거자료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0 년을 향한 코리아타운의 5 대사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깨끗하고 아름다운 코리아타운
2. 가장 한국 문화적인 코리아타운
3. 비지니스가 잘 되는 코리아타운
4. 차세대를 위해 코리아타운 역사를 교육
5. 코리아타운의 미래를 위한 연구

우리 모두가 미국 안의 최고의 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용 올림 (2019 년 12 월 5 일)

Greeting for the 2nd Annual Koreatown Day ' Celebration

by Min Byung-yong (Director of Korean American History Museum)

December 05, 2019

December 8th is the Los Angeles Koreatown's birthday.

Immigrants from Korea as defined as the first generation, like many of early America's pioneers, worked hard day and night for only one dream of establishing a Korean Village in Los Angeles, California. Today is the 47th years (1972~2019) since we making the world's largest and proud Koreatown.

Koreatown in Los Angeles became a wonderful place where Korean culture meets America in half a century.

The Korean History Museum took the lead in enacting Koreatown Day in 2018 with Dr. Kim Gene-hyoung, the first Chairman of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We petitioned to HERB J. WESSON, JR., as the 10th District in the City of Los Angeles (currently as the incumbent President of the Los Angeles City Council), and the LA City Council's all of 15 Councilmembers unanimously passed a resolution as denominated as 'Koreatown Day' on December 05, 2018.

It's been quite a bit time, since Koreatown in LA has become a very nice and willing to visit place that either who are coming from Korea or any of 50 States in USA. And no doubt that I have seeing the birthday of Koreatown, where can I be prouder than this historical event?

Los Angeles Koreatown is currently in progress with approximately 50 architectural projects . And Koreatown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minority communities in Los Angeles, also it to be the number one place for preserving Korean culture on the whole in the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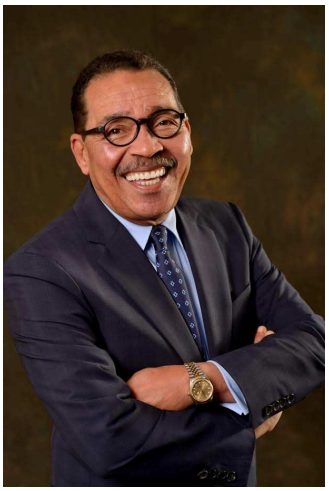
Chairman Kim Gene-hyoung's dream for the future that made Koreatown will be celebrating its 50th anniversary in 2022. In order to trace the footsteps of Koreatown formation in the barren circumstances, here I have providing some records of historical evidences.

Therefore, I thought about the 5 intangible major pillars on earth in Koreatown for upcoming 100 years.

Koreatown will be
1. Cooling place as clean and beautiful
2. Blooming Korean-cultural heritage
3. Promoting good for all business sectors
4. Instructing the history of Koreatown for the next generation
5. Doing Research for the future of Koreatown

May wish we all to be good protagonists of developing arena into the best community town in the USA.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s!



HERB J. WESSON, JR.

PRESIDENT, LOS ANGELES CITY COUNCIL
COUNCILMEMBER, 10TH DISTRICT

KOREATOWN DAY

2nd Annual Celebration

As President of the Los Angeles City Council and on behalf of the residents of the 10th District in the City of Los Angeles, which includes Koreatown, it is my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2nd Annual Koreatown Day Celebration.

Koreatown celebrates and showcases the broad spectrum of Korean contributions to the building and creating of our great City. The event helps to reinforce positive images, destroy negative stereotypes and promote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awareness by fostering communication between peoples of diverse cultures, races and lifestyles.

A special thanks to all of this year's sponsors, merchants and artists who have been dedicated to stimulating, celebrating and cultivating the rich tapestry of Korean American culture and accomplishments.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and memorable event.

Sincerely,

Herb J. Wesson Jr.

HERB J. WESSON, JR.
President, Los Angeles City Council
Councilmember, Tenth District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축사

김완중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제2회 「코리아타운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0년대 한인들의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된 이래 LA를 위시한 이곳 남가주는 날로 성장하여 이제는 「한국 밖의 한국」이라 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LA의 올림픽가에 코리아타운이 형성된 지 40여년이 지난 작년, LA시의회는 12월 8일을 「코리아타운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12월 8일은 1972년 코리아타운번영회가 창립된 날이며 또한 1980년 LA시의회가 코리아타운 구획안을 통과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과 함께 우리 한인들의 이민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온 우리 동포사회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단합된 모습으로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LA 「코리아타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김 완 중

김완중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

Kim Wan-joong : Consul General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A

로스앤젤레스한인회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December 5, 2019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KAFLA)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Greater Los Angeles, it is my great pleasure to join you in celebrating the 2nd Anniversary of Koreatown Day.

I commend Dr. Gene Kim for his vision and leadership in obtaining Koreatown's official designation 46 years ago, the adoption of the Koreatown Specific Plan on December 8, 1980, and countless outstanding contributions and accomplishments. Under the guidance of Dr. Kim,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e Los Angeles City Council, Koreatown has grown to become one of the most unique neighborhoods in the City of Los Angeles, with its diverse physical and cultural landscape. We are proud to honor Koreatown's rich heritage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o Los Angeles and beyond.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and thank the Korean American History Museum and L.A. City Council President Herb Wesson for your leadership in passing the historic resolution so that we may commemorate Koreatown Day for generations to come!

Sincerely,

Laura Jeon, Ph.D.
President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KAFLA)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제2회 코리아타운의 날 기념식

축사

민주평통LA협의회 회장 에드워드 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의 사명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민병용 한인역사박물관장님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인이민 116주년이 되는 오늘 날, 우리는 수많은 행사와 기념식을 통해 선열들을 기리고 애국심 고취와 함께 잊고있던 역사를 재조명하며 한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코리아타운의 날 기념식도 마찬가지로 코리안들의 불굴의 의지와 땀으로 일구어낸 코리아타운의 역사를 재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각계인사들이 힘을 보태 탄생시킨 또 다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민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기록, 관리하는 일도 후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한 밑걸음이 될 걸로 믿으며 더욱 발전되길 기원드립니다.

한반도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민주평통도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라는 슬로건을 걸고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본국 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주류활동으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저희는 저희들데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포사회 일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한번 코리아타운의 날 기념식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참여하신 모든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nd Annual 'Koreatown Day' Celebration!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Los Angeles

Dear Friends,

With nearly 50 years of proud history, our Korean community is growing in the Los Angeles community. Last year, the Los Angeles City Council passed the Koreatown Day. This is a sign that our Korean community has an excellent standing in the LA community an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city.

For generations we have protected and developed our beloved area, forming this present society.

Whenever we face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we have endured and worked for our children

and our nations. Let's remember our past and remember the contributions we made on Korean

Town Day, the second anniversary of this year.

We must not settle for the present but make our society more beautiful for our descendants. In

this time when the Korean Culture becomes the center of this society and is influential, we have

to strive to become a better society so that our children of the next generation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future can continue our identity. Besides, we hope to be a Korean American

society that works in harmony with the minorities and multi-ethnic groups that are still suffering.

Understands each other's difficulties and helps to solve the problems of our community.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we congratulate Koreatown Day on its second anniversary this year and look forward to working harder together for the development of our Korean society.

Thank you and God bless you.

Daniel S. Park : President of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Los Angeles

Los Angeles Korean Festival Foundation
로스엔젤레스 한인 축제재단

제2회 '코리아타운의 날' 기념식

축사

조갑제 회장 -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 재단

로스앤젤레스는 한인 이민 역사의 희노애락을 담은 역사적이고도 상징적인 도시 입니다.

하와이가 첫 한인들의 미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했다면 로스앤젤레서는 이를 계승 발전시킨 한인 이민 2 기의 출발점이자 이민 문화의 꽃봉우리를 피워낸 한인 이민자들의 고향으로도 비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한인 관계 인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코리아타운의 날 제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 올림픽가를 중심으로 한 한인타운이 명실상부한 해외 이민 역사의 발상지임을 크게 알린지도 벌써 1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미국 주류사회에 우리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힘을 마음껏 과시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46 년간 축제를 통해 문화 민족의 자긍심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자랑하며 자부심을 지켜온 한인 축제 재단의 회장으로서 이민 문화의 씨를 뿌려낸 한인 사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코리아타운의 날'이 이민 선배들이 뿌려놓은 역사의 씨앗을 잘 보존 관리하고 후세들에게는 문화 유산의 화려한 꽃을 물려 줄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 보존, 발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 재단 조갑제 회장

한국의 날 축제를 빛내는 프로그램 표지 (1975-2016)

REC

1975년(제2회)

1980년(제7회)

1981년(제8회)

1982년(제9회)

1983년(제10회)

1984년(제11회)

1985년(제12회)

1986년(제13회)

1987년(제14회)

1988년(제15회)

1989년(제16회)

1990년(제17회)

사진은 1973 년도 초의 코리아타운의 초창기다. 이 한글 간판 모두를 청계 김진형 선배는 손수 무료로 글을 써 주었다. 그가 벌인 한글 간판 달기 운동이 곧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는 바탕을 이룬 것이다. 한글 간판업을 하는 사람도 없던 당시청계선배는 올림과 버몬트 그리고 8 가와 웨스턴가에 6 개의 무료 간판을 손수 써서달아 주었다. (주간한국 74 년 4 월 14 일 편집자-주)

The photo is a portrait of Koreatown in early 1973. All of the Korean signboards were written by ("Cheonggye" aka) Kim Gene-hyoung for free charged. His Korean signboards campaign was fundamentally formed to the Koreatown. At that time there was no Korean signing business, Cheonggye had been written out himself over sixty-one (61) signboards as free charged to those of stores: Those were from Olympic Blvd + Vermont Ave to the 8th Street + Western Ave.
(Weekly Korea: April 14, 1974 - Editor)

LA 코리아타운 / Koreatown in L.A.

美国에 「떡집」 「한증탕」 등 看板

今週의 이슈

韓人번영회회장 金鎭亨씨가 말하는

로스앤질리즈의 코리어·타운

美洲이민70년 열쇠집 방앗

사진은 1973년도초의 코리아타운의 초창기다. 이 한글 간판 모두를 청계 김진형 선배는 손수 무료로 써주었다. 그가 벌인 한글 달기 운동이 곧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는 바탕을 이룬 것이다. 한글간판업을 하는 사람도 없던 당시에 청계 선배는 올림픽과 버몬트 그리고 8가와 웨스턴에 61개의 무료 간판을 손수 써서 달아 주었다. ◀주간한국 74. 4. 14.▶ (편집자)

제2회 코리아타운의 날(Koreatown Day)
감사의 인사말

- 김진형 박사

12월 8일을 코리아타운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제2회 기념행사를 귀한분들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허브 - 웻슨 시의장님과 시의원님들 전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살던 젊은 시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희생은 감수해도 좋다는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는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몽땅 바쳤고 어떤 이는 목숨도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조국 한반도를 일본이 강점하고 있던 일본 군국 제국주의 시대에 살면서 선친들의 일제에 항거하는 불굴의 애국심을 배웠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나자 엄동설한에 평양에서 부산까지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집을 버리고 남한으로 처절하게 걸어가는 수백만 피란민 행렬의 일원으로 비참함도 경험하였습니다.

1968년 미국 유학을 위하여 LA에 정착하게 된 나는 한인들이 모두 뿔뿔이 헤어져 살아서 한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요일을 기다려 한인교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일본타운도 가보았고 중국타운도 가보았는데 그들은 그때 이미 번듯한 타운을 형성하고 정치인도 길러 내면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미국 정책에도 반영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무척 부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인들도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내야만 미국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저 없이 코리아타운 형성에 나의 젊음과 자금 등 모든 것을 바쳐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코리아타운을 만드는 기획안에 모든 LA 시의원들께서는 기쁜마음으로 찬성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한인 인사 몇몇분들은 올림픽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획안을 못마땅 해 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다녔고, 심지어 어떤 인사는 당시의 라성 총영사님을 만나서 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흘려 망신을 주기까지 하였으나 저는 묵묵히 이러한 방해와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극복해 내었습니다.

후일의 포상을 받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 본 일도 없고, 다만 나의 애국 애족심의 발로였는데 오늘날 세간에서 저에 대해서 코리아타운 형성의 대부로 그리고 곧 47회를 맞이하는 LA한인축제 코리안 - 퍼레이드의 창시자란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LA 한인사회는 LA시의회 15명의 시의원 중 2명의 한인 시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LA에서 타 커뮤니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발전으로 인해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지금의 코리아타운을 함께 만들어 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의 저력을 모두 함께 모아서 코리아타운을 사랑하고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귀한자리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형 배 (Korean Festival Founder/Former Chair of the Korean Development Association)

(2019년 12월 05일)

Greeting & Thanks Remark for the 2nd. 'Koreatown Day' Celebration!

by Dr. Gene Kim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honorable Herb J. Wesson Jr. as a President of the Los Angeles City Council at City of Los Angeles and all of the LA City's Councilmembers recognized for the official designation of December 8th as the Koreatown Day.

In my youth time, there had the spirit of the age' (Zeitgeist) that was a calling to sacrifice for the Nation and State. Therefore, some sincere people gave their property for the sake of their country, and some gave even their lives. I lived in the era of the Japanese militant imperialism, where Japan was dominant ruling by harsh controlling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June 25th Korean War erupted, I experienced misery as much as like the millions of refugees who left their homes for freedom from north Pyongyang to south Busan.

I settled in Los Angeles to pursuing Master's degree in the United States in 1968. I had to wait till to Sunday to find out Korean churches in order to meet Koreans because of Koreans to live apart. I visited Japan-town and China-town in LA, where they've already formed a town and support politicians to reflect the voice of the community in the arena of making policy. It was a very enviable reality.

I realized that Koreans can live together very well with many other communities in America as having universal brotherhood, only if fellow Koreans forming Koreatown and having voice for Korean community. So without hesitation, I devoted everything to my youth and a large sum money to form Koreatown. But the process was never smooth. All LA City Councilmembers were happy to recognised with the project to forming Koreatown. On the contrary, some Koreans criticized me for dissatisfied with the project, which was centered around at Olympics Blvd. I met with a Consul of LA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ven the Consul criticised me through distorted information about me, but I quietly endured these obstacles and difficulties. I never thought it would be a reward for the future, but it was my patriotism and loving the community. I feel so humble to hear that as I am a founding-father of Koreatown and the founder of LA Korean Festival and Korean parade as next coming year will be the 47th Korean Festival.

Our Korean community has now elected two Korean councilman out of fifteen councilmembers in the City of Los Angeles. Now we have created Koreatown, where everyone wants to come here because of the tangible-intangible development that allows brotherhood with other communities in Los Angeles.

I'm seeing it very grateful with deeply moved. We look forward to gathering all of our energy together to loving and prospering Koreatown.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with us!

Kim Gene-hyoung (Founding Chair of the Korean Development Association)

Dec. 05, 2019

City of Los Angeles

Certificate of Recognition

is hereby presented to

Dr.

Gene Kim

Founder, Koreatown & Korean Festival

Koreatown Day Inaugural 2018
Business and Community Leader Award

For your tireless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the residents, stakeholders and business leaders of Koreatown. Your dedication of heart and hand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is to be commended. This certificate is a measure of your devotion of service to the people.

December 5, 2018

HERB J. WESSON, JR.
President, L.A. City Council

DAVID E. RYU
Councilmember 4th District

December 8th 2018, the Motion passed for official "Koreatown Day"

When the City of Los Angeles agreed to enact about the Motion on December 8th 2018, for official "Koreatown Day", it is unanimously passed in advance by the LA City Council on December 5th 2018 announced publicly by the LA City Council President Herb Wesson on declaration of Koreatown Day. Following speech was thanks replying with the declaration of Koreatown by Dr. Kim Gene-hyoung, the leading figure of Koreatown at the LA City Hall. (Photo: LA SBS TV)

LA시정부가 12월8일을 'Koreatown Day(코리아타운의 날)'로 제정하는 동의안을 12월5일에 만장일치로 LA시의회가 통과함에 따라 Herb Wesson 시의장의 코리아타운 데이 선포에 이어 김진형 코리아타운 형성의 주역이었던 김진형 박사가 감사의 답사를 의회에서 하고 있다. ☞ 사진은 LA의 SBS TV 영상

김진형 회장, 코리아타운 형성의 공로 인정 - LA 총영사 Koreatown 형성의 감사장

"김진형 귀하는 지난 40 여년간 탁월한 지도력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코리아타운 형성, 한인축제 퍼레이드 창시 등 한인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3 년 9 월 20 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신영성

Acknowledgment of Dr. Kim Gene-hyoung as a Leader of Koreatown Formation by Los Angeles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Honorable Kim Gene-hyoung,

"Thank you for your great contribution to the harmony and development of Korean-American community over the past 40 years, such as the formation of Koreatown and the launching of the Korean Festival Parade" (September 20, 2013)

Shin Young-sung (The Los Angeles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감 사 장

김 진 형

귀하는 지난 40여년간 탁월한 지도력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코리아타운 형성,
한인축제 퍼레이드 창시 등 한인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3년 9월 20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신 연 성

이종성 칼럼

잔디밭

人間 김진형

이곳 한인사회도 정말 커졌다. 19년전 LA에 이주했을 때만해도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올림픽가의 코리아타운이라고 해봤자 김방앗간이나 올림픽식품정도의 간판이 겨우 눈에 띌 정도였고 단체라야 한인회정도였다. 교포수도 몇만명 안되는 그런 시절이었다.

신문사의 주일특파원으로 도쿄에서 일하다가 본보 초대 편집국장으로 부임하게 된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당시 지사장이하 몇안되는 기자들과 신문만들기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던 일이 바로 어제 일같이 뇌리를 스쳐간다.

그러던 어느날 74년초 코리아타운 번영회의 김진형회장이 신문사를 찾아왔다. 올림픽가에서 코리안들의 파워를 과시하고 타운을 발전시키기 위한 퍼레이드를 펼쳐보자는 것이었다.

김회장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지사장과의 숙의끝에 채택돼 올해로 벌써 제18회 코리안 퍼레이드를 맞게됐으니 그의 선견지명이 적중한 셈이다.

〈미주본사 주필〉

김진형회장은 당시 타운내 몇 안되는 명사중 한명이었다. 72년 코리아 타운 번영회를 창립한 그는 우선 타운내의 한글간판 달기운동서부터 한국종합의료원설립에도 진력했고 그때만해도 1세들이 중심이었던 교포사회내서 1세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전개하는 등 사보다는 공을 위해 뛴 열혈한이었다.

4년전 코리아타운교민회로 전신한 번영회는 요즈음도 타운내 조기 청소운동이나 낙서 지우기운동등 꾸준히 교포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문제나 마약퇴치운동에도 참가하고 있어 말 많은 여타 단체보다는 훨씬 실속있게 교포사회에 공헌하고있다.

그 교민회 명예회장인 김진형씨도 이젠 60을 바라보는 반백이지만 행동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청년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음은 든든한 일이다.

그의 조부이신 김중섭씨는 평양에서 남산현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고 부친인 김찬성씨는 왜정때 사상가로 해방후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재빨리 월남한 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남북교류는 시대적사명이라며 남북문화교류를 위해 최근 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에 민주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할수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의 이곳 교포사회에의 더욱 큰 공헌을 바라는 바다.

[The Korea Times] February 28, 1991 (Pg.9)

“Humanist, Kim Gene-hyoung”
(by Lee Jong-sung - Chief editor Korea Times)

The Korean community in Los Angels has also grown. When I moved to Los Angeles 19 years ago, I didn't expect it to develop this way. The Koreatown nearby on the Olympics Blvd was just a few commercial signboard of “Kim Bangah”(a traditional Korea’s rice mill)or “Olympic foods” market. There were approximately only a few ten thousand Koreans.

After working in Tokyo as a correspondent for a newspaper, I came to work as the first editorial director of this Korea Times paper. At the time, a few reporters rushed to make reporting to daily newspapers on time, I feel like such a memory as if in yesterday.

One day, early in 1974, Mr. Kim Gene-hyoung the Chairman of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visited my editorial desk in Korea Times. Gene Kim suggested his plan to forming Koreatown and to promote Korean people’s power in LA. Kim strongly recommended setting up a cultural event at the Olympic Blvd, as the Korean Parade was able to develop the Korean community as a town. Mr. Kim's original idea was adopted after deliberation with the branch president of Korea Times. This year has marks on 18th Korean Parade; thus, Gene Kim’s idea of foresight is definitely right as a demonstration.

At the era, Kim was one of few VIP figures in town. Gene Kim founded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in 1972. He worked hard to establish the Korean Medical Center and also had promoting to “Hangul” the Korean letter signboards movement in the town.

The Koreatown Prosperity Association which was predecessored four years ago as the currently called as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continues to work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such as cleaning and graffiti erasing campaigns in town. To contribute to the Korean community, it was appreciated much more pragmatic ways.

Kim Gene-hyoung the honorary chairman of the Korean Prosperity Association, is now at his age nearly turning 60's, but it is reassured that he still looks like as if a young man by his diligent works.

Gene Kim’s grandfather, Kim Joong-seop, was the founder of Namsanhyun Church in City of Pyongyang, and his father Kim Chan-sung was get away to Seoul as a refugee when the communist regime was established in North Korea.

However, he argued that inter-Korean (North and South)exchange relationships is a great mission. Thus, he has recently been working for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movement, which is his idea for shortcut to bring about a wind of democratization in North Korea. He hopes for his greater contribution to the Korean community here.

Forming Koreatown: Using Korean alphabet "Hangeul" signboards campaign initiated by Dr. Kim Gene-hyoung, who became the first chairman of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in 1972.

코리아타운 형성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1972년 코리아타운번영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이 된 서예가인 김진형 회장은 손수 자동차에 사다리와 몇가지 색의 페인트와 붓 등 재료를 싣고 다니며 한인 타운 후보지로 미리 선정한 지역을 돌아 다니며 처음에는 한인 상점들을 상대로 한글 간판을 써서 달아 주다가 숫적으로 몇 안되는 한인상점만으로는 코리아타운 형성이 불가능함을 느끼고 후보지 안에 있는 다른 민족의 상점들을 찾아가 한글간판을 옆에 조그마하게 달면 많은 한인들이 찾아 와 물건을 사 줄 것이라 가게 주인들을 설득하여 한글간판을 달아 주어 결국 그 후보지를 영성하나마 한국촌의 풍경을 연출하는 윤곽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김회장은 코리안 퍼레이드를 창시하여 정치인들은 올림픽가에 퍼레이드에 참가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결국에는 코리아타운의 경계를 1980년에 지정 받게 된 것이다.

1972년에 코리아타운 형성을 위하여 김진형 코리아타운번영회 창설 초대회장이 시작한 한글 간판달기 운동

Forming Koreatown: Using Korean alphabet 'Hangeul "signboards campaign initiated by Dr. Kim Gene-hyoung, who became the first chairman of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in 1972.

In order to fulfill the dream of forming Koreatown, Kim Gene-hyoung (a calligrapher himself who became the first chairman of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in 1972) carried a ladder, several colors of paints and brushes on his car, and went around at pre-selected candidate area for forming Koreatown. Korean letter, in which pronounced "Hangeul "adhered to signboards for Korean run mom&pop stores on the streets, but Gene Kim felt that only a few Korean shops had participated situation was impossible to forming Koreatown. So, Gene Kim visited other ethnic group's running shops, where were inclusionary candidate area. Where Gene Kim recommended them it was good strategy to increasing income by just putting on a small Korean signboard next to them.Gene Kim persuaded many store owners to hang the signboards in Korean letter. Although initially it was roughly formed, Koreatown eventually outlined as a community township approved by the City of Los Angeles. Based on this, Dr. Gene Kim founded the Korean Parade, where succeeded in many politicians were willing to participating in the parade at the Olympic Blvd. Gradually Koreatown was assigned to having a border of community township in 1980.

1972 년에 코리아타운 형성을 위하여 김진형 코리아타운번영회 창설 초대회장이 시작한 한글 간판달기 운동

코리아타운 형성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1972 년 코리아타운 번영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이 된 김진형 회장은 손수 자동차에 사다리와 몇가지 색의 페인트와 붓 등 재료를 싣고 다니며 한인 타운 후보지로 미리 선정한 지역을 돌아 다니며 처음에는 한인 상점들을 상대로 한글 간판을 써서 달아 주다가 숫적으로 몇 안되는 한인상점만으로는 코리아타운 형성이 불가능함을 느끼고 후보지 안에있는 다른 민족의 상점들을 찾아가 한글간판을 옆에 조그마하게 달면 많은 한인들이 찾아와물건을 사 줄 것이라 가게 주인들을 설득하여 한글간판을 달아 주어 결국 그 후보지를 엉성하나마 한국촌의 풍경을 연출하는 윤곽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김회장은 코리안 퍼레이드를 창시하여 정치인들은 올림픽가에 퍼레이드에 참가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결국에는 코리아타운의 경계를 1980 년에 지정 받게 된 것이다.

Forming Koreatown: Using Korean alphabet "Hangeul" signboards campaign initiated by Dr. Kim Gene-hyoung, who became the first chairman of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in 1972.

In order to fulfill the dream of forming Koreatown, Kim Gene-hyoung (a calligrapher himself who became the first chairman of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in 1972) carried a ladder, several colors of paints and brushes on his car, and went around at pre-selected candidate area for forming Koreatown. Korean letter, in which pronounced "Hangeul" adhered to signboards for Korean run mom&pop stores on the streets, but Gene Kim felt that only a few Korean shops had participated situation was impossible to forming Koreatown. So, Gene Kim visited other ethnic group's running shops, where were inclusionary candidate area. Where Gene Kim recommended them it was good strategy to increasing income by just putting on a small Korean signboard next to them. Gene Kim persuaded many store owners to hang the signboards in Korean letter. Although initially it was roughly formed, Koreatown eventually outlined as a community township approved by the City of Los Angeles. Based on this, Dr. Gene Kim founded the Korean Parade, where succeeded in many politicians were willing to participating in the parade at the Olympic Blvd. Gradually Koreatown was assigned to having a border of community township in 1980.

"코리아타운 스페시픽 플랜 서명식 1979년도"

The final signing ceremony for "the Koreatown Specific Plan", petitioned by Gene Kim

김진형 '코리아타운 번영회'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회장이 1979년에 Architect David Hyun에게 의뢰하여 만든 Koreatown Specific Plan을 David Cunningham 제10th District councilman에게 제출하여 LA시의회가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그 시행을 위하여 LA시청에서 서명식을 하는 모습

Koreatown 의 최종 구역 서명식이 1980 년 12 월 29 일 LA 시청에서 열렸다.
- 왼쪽부터 데이빗 현 Jr. 데이빗 커닝햄 시의원, 간축가 데이빗 현, 칼빈 해밀턴 LA 시 도시계획국 국장, **코리아타운 번영회** 김진형 회장, 부동산 공인 중계사 소니아 석 여사.

The final signing ceremony for "the Koreatown Specific Plan" was held on December 29, 1980 at the Los Angeles City Hall. (From left, David Hyun Jr. David Cunningham City Councilman, architect David Hyun, Calvin Hamilton, Director of the City of Los Angeles City Planning Bureau, Kim Gene-hyoung - Chairman of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Realtor Ms. Sonia Suk)**

Koreatown의 최종 구역 서명식이 1980년 12월29일 LA시청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데이빗 현 Jr, 데이빗 커닝햄 시의원, 데이빗 현, 칼빈 해밀턴 LA시 도시계획국 국장, 김진형 회장, 소니아 석 여사.

1968년 미국에 유학을 목적으로 LA에 정착한 김진형 씨는 미국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우리 민족이 미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다른 민족들처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코리아타운을 만들어야 우리도 다민족 사회의 일원으로 미 주류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창하며 1972년12월8일 코리아타운번영회를 창립하고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거리에 한글간판이 달려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당시 김진형 씨가 코리아타운 후보지로 임시로 정한 바운다리에 김진형 씨는 한글간판달기 운동을 시작하고 당시 한글 간판상이 없던 시절 김진형 회장은 손수 페이트 통과 붓, 사다리 등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며 백인 상점, 흑인상점, 일본사람이 주인인 상점, 중국사람이 주인인 사점을 가리지 않고 한글가판을 달면 영어를 모르는 한인들이 물건을 사러 올 것이라 역설하며 코리아타운 후보지를 돌며 한글간판을 여기저기 써 주었다. 1974년에는 코리아타운 후보지 중심가에 있는 LA시립공원인 Ardmore Park에서 한국의 날 축제를 펼치고 공원 앞 올림픽 거리에서는 여기에 코리안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코리안 퍼레이드를 하였다.

이로부터 김진형 코리아타운번영회 회장은 아드모아 공원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그 지역 일대의 다민족 노인들을 후원하는 행사를 꾸준히 펼쳐서 1994년 드디어 LA시 공원국은 김진형 회장에게 위와 같은 상패를 공원 행사 날에 증정하게 되었다.

상패는 "LA시 공원국에서 코리아타운번영회 김진형 회장에게 증정한 것이며 그해 1994년에 이르기까지 김진형 회장은 21년간 꾸준히 아드모아 지역 주민들에게 매해 홀리데이 런천을 제공하여 주어서 이 지역 모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공원 이름은 후에 LA시정부가 '서울국제공원(Seoul International Park)'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On behalf of

Los Angeles city Recreation and

Parks Department – Ardmore Recreation Center

Ms. R. Evans, Recreation Director II

And the Ardmore Community

Is Honored in Presenting

This Award of Recognition to

MR. GENE KIM

AND THE KOREATOWN ASSOCIATION

For providing the funding for the

1994 Ardmore Holiday Luncheon.

Your 21 years of service has made many

Thousands of people very happy.

THANK YOU

KOREAN FESTIVAL - PHOTO

코리안 페스티벌 창시자 김진형 박사의 헌신과 기록사진 이모저모

Korean Festival founder Dr. Gene Kim's contribution to Prosperity for the Koreatown

KOREAN FESTIVAL – PHOTO

New Orleans Jazz Band ŝ 'Saints Go Marching In "at Olympic Blvd.
뉴올리언스 재즈 밴드의 흥겨운 마칭 행진 - 코리안 퍼레이드

한국의 전통 탈춤 행진 '코리안 퍼레이드' Korean Traditional Musical Performance

한인축제 한국 농산물 전시 엑스포 Korean Festival-Korea's Agricultural Product Ex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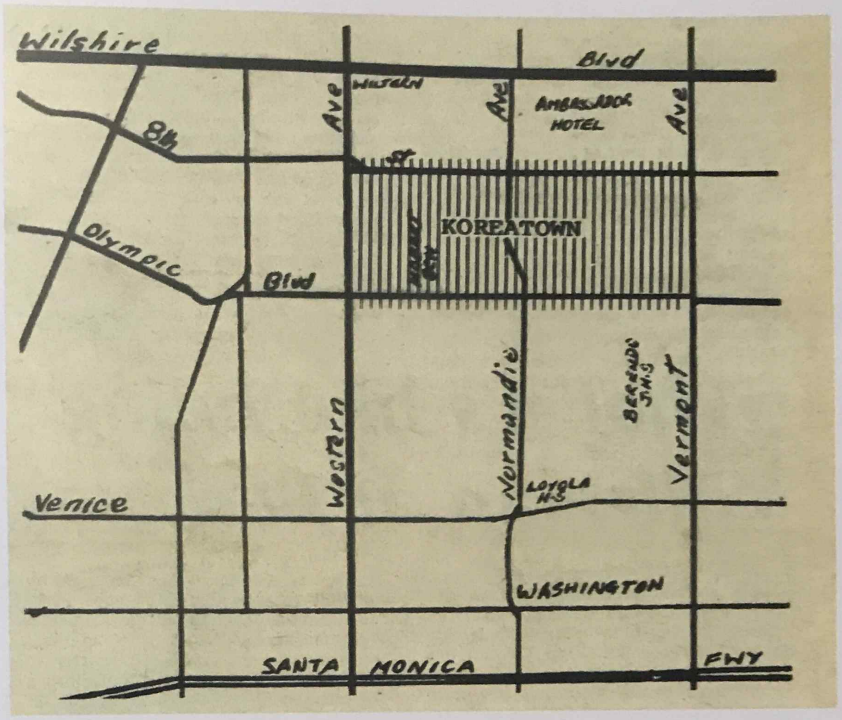
LA 한인축제 스케치 이모저모 …한국 식재료 농산물 엑스포 부스를 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 재단이 주최하는 2019 제46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열렸다. 하루에도 수십만의 방문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축제장에 들어선 부스는 모두 277개로 이 를 세분하면, 일반부스 122개, 음식 부스 17개, 엑스포 부스가 120개로 한국의 지자체들과 우수기업체 홍보 관, 각종 농수산물 판매 부스가 다채롭게 늘어섰고 흥정하는 모습들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정겨운 축제 분 위기를 한껏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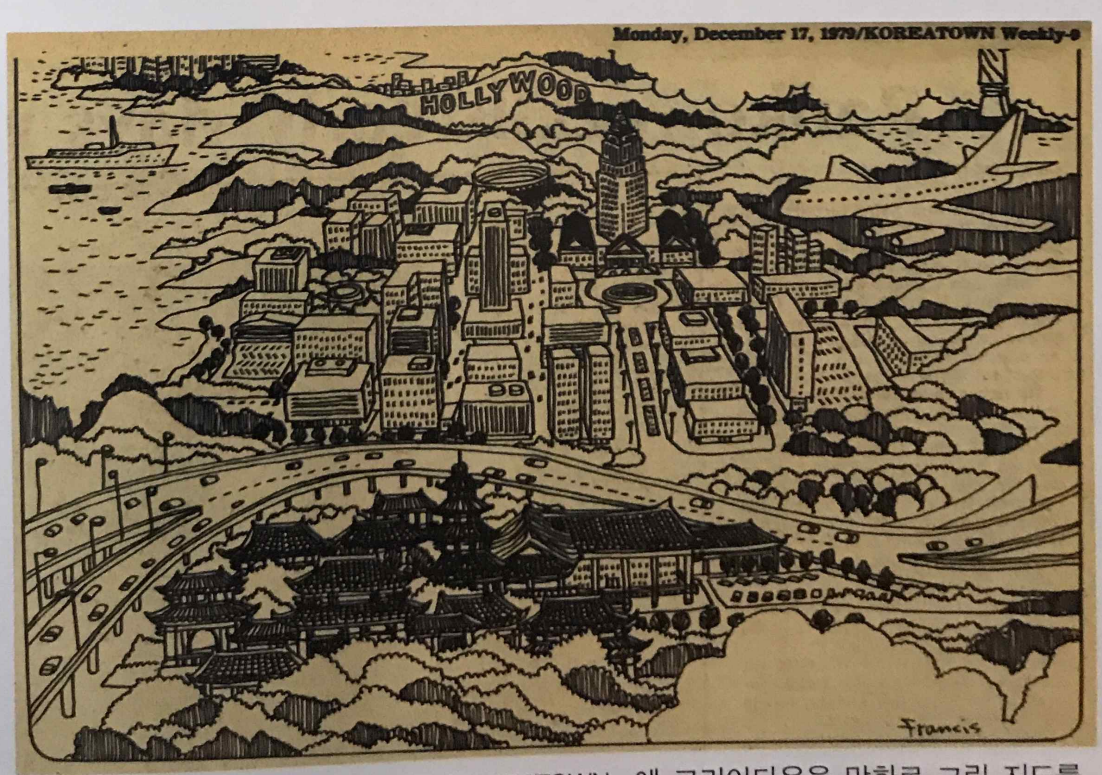
The first picture from the left shows Dr. Kim Gene-hyoung, who is the first Asian Police Permit Review Panel's Commissioner at LAPD police department's history in 1993, as sooner to be approved by the LA City Council and Gene Kim pledged to comply with all US laws (13 years of service). The picture shows the pledge to be appointed by the Los Angeles County as a Senior Welfare Commissioner(18 years of service). The third picture is a pledge to be elected as the Vice-chairman of the Senior Welfare Commission. The Los Angeles County government has responsibilities to its jurisdiction for 88 cities, including the City of Los Angeles, and over 142 large communities. The second from the right is Vice-chairman Kim Gene-hyoung, at the era.

왼쪽부터 첫번 사진은 김진형 박사가 1993년 LAPD 경찰 역사상 최초로 경찰허가담당 커미셔너로 임명되어 LA 시의회에서 인준을 받고 미국의 모든 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는 장면이다(13년간 봉직). 가운데 사진은 LA 카운티 정부에서 노인복지 커미셔너로 임명되어 서약하는 장면이며(18년간 봉직) 세번째 사진은 노인복지 커미션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서약하는 장면이다. LA카운티 정부는 LA시를 포함하여 88개의 도시를 관장하며 142개의 광활한 지역사회를 관장한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진형 부의장.

코리아타운 구역 지도와 그림으로 보는 타운



영문주간신문 KOREATOWN에 실린 코리아타운 새 구역 지도(1980.12.1)



K.W. Lee가 펴낸 영문주간신문 『KOREATOWN』에 코리아타운을 만화로 그린 지도를 게재했다 (1979.12.17)

Koreatown Map (Weekly Koreatown Dec. 01, 1980)

Journalist Lee, Kyung-won's Report on the ' Weekly KOREATOWN' (Dec 12, 1979)

“김진형의 꿈”LA출판기념회 [김진형 박사의 공적]

“LA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날 축제-인간 김진형의 꿈”출판기념회 대성황

저서 “LA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날 축제-인간 김진형의 꿈”의 출판기념회가 ‘한인 역사박물관’ 주최(관장, 민병용)로 미국로스앤젤레스 가든스윗 호텔에서 2017년 9월29일 열린바 있다. 300여명의 재미동포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자리를 하며대성황을 이루었다.

축하객 명사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인 랄프 안 (91세, 1926년생) 박사가 건강한 모습과 목소리로 “1930년대 당시 남가주의 재미한인은 불과 300명에 불과 했으나 오늘날의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낸 우리 한인들의 성실한 노력들과 질적 양적 성과를 보면 정말 감격스럽다, 일제 강점기시절 해외의 우리 선조들은 ‘대한인국민회의’를 결성하여 나라를 되찾자며 자발적으로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는 등 투철하게 분투해 왔다”라면서 “한인들이 구심점을 갖는 코리아타운 형성에 크게 기여한 김진형 박사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며 참으로 기쁘다”는 축사를 해 주었다. LA카운티 노인복지 커미셔너를 18년, LA경찰국 인허가위원회 커미셔너로 13년간 역임한바 있는 김진형씨의 코리아타운만드는 꿈을 여러모로 도와온 허브 웻슨 (Herb Wesson) 제 10지구 시의원이며 LA시의회 의장의 감사장이 전달됐다. 김박사의 절친인 김홍기 국제변호사협회 회장은 같은날 (29일) 84세 생일을 맞은 김진형 박사의 생일케이크 자르는 것을보며 함께 기뻐했다.

한인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한 “LA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날 축제-인간 김진형의 꿈”은 언론인 출신 민병용 관장이 14개월에 걸쳐 완성한 저서이다. 자료수집만 5개월 걸렸고 집필하는데 7개월 그리고 편집을 꼬박 2개월에 걸쳐 완성했다는 전언이다. 저자 민병용 한인 역사박물관 관장은 1974년부터 한국일보 기자로 코리아타운 형성과 한인축제의 시작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한 바 있다. 80년대 LA시의 코리아 타운 통과 전후의 시의원 및 정치인등 주요 인사를 인터뷰하여 책을완성했다. 코리아타운 만들기는 “코리아타운 번영회”를 창립한 1972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다. 1980년 12월 8일LA시의회가 코리아타운 명명의 동의안을 통과 시키며 공식적인 한인타운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이를 위한 주역이 바로김진형씨로 그는 LA의 “코리안 퍼레이드”로 유명한 ‘한국의 날’ 축제를 창시한 창시자이기도 하다.

책의 서평은 남가주대학교 (USC) 한국학전통도서관 Joy Kim 관장이 해주었다. “이 책을 통해 LA한인타운 형성에 관한 구체적이며 자세한 내막을 비로소 명확히 알게 되어 기쁘고 역사적인 학술서로서 본 USC대학에서 보존하겠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김진형 박사는 문화과 예술을 존중했던 기품있는 인문주의자로서 코리아타운 형성에 큰 이바지를 한 노고에 감사하며 같은동문으로서 기쁘다" 라며 서울대 동문인 강신용 회계사 대표의 출판기념회의 의미가 소개되었다.

김진형 박사는 다음과 같이 감회를 밝혔다. “1968년 미국의 꿈을 안고 LA에 정착한 저는 당시 차이나타운과 재팬타운을 돌아보고 그들의 자체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고 한편 놀라웠습니다. 우리 한인동포들이 가장먼저 해야 할 급선무가 코리아타운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물론 내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뛰어들 수도 있을 일이지만, 이를 위해 저는 무작정 앞장섰습니다”라고 말한다.

‘LA코리아타운’을 만들어 낸 전설적 인물로 평가 받는 김진형 박사는 1968년 미국에 온 이후, 당시 누구도 생각지 못한발상으로 코리아타운의 건설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1971년 지금의 올림픽 거리의 킹슬리와 하바드 거리 사이에 “한국서적센터”라는 조그마한 한국어 책 전문 서점을 개업하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가에 우리글 한글을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당시만 해도 책방을 여는 것이 기이하게 보일 정도로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시절이었다. 한인은 문화민족이라는 긍지의 씨앗을 로스앤젤레스 대로에 심은 셈이다.

그는 코리아타운 형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우선 업소들마다 한글과 영어로 된 이중언어 간판 부착 필요성을 피력하고 한글간판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직접 상점마다 한글간판을 달아 주는데 앞장섰다. 다시금 그는 한인상가의 번영을 위해 1972년에 ‘코리아타운 번영회’를 창설 하였다. 함께 타운상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리고는 ‘미국 속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코리안퍼레이드와 함께한 ‘LA한인축제’ (“한국의 날” 축제)를 최초로 개최하는데 성공하였다.

오늘날 한인타운의 개발열풍이 불기까지 한인상가가 오늘처럼 번영하는데 있어 그가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은 원래 주거지역이었던 지금의 코리아타운 지역에 조닝을 새로 변경해 상가지역(Commercial Zonning)으로 만든 것이다. 이미 그의노력으로 코리아타운 지역의 경계를 동서로는 버몬트 거리와 웨스턴 거리 남북으로는 올림픽 블루버드와 8가로 시정부로부터 인준을 받았으나 상가지역 뒤로는 모두 주거지역이라 상점들이 주차장 시설을 운영하려면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에 코리아타운 형성의 발목이 잡혀있었다. 이에 그는 시정부에 "Koreatown Specific Plan"이란 계획서를 제출했고, LA시의회로부터 만장일치로 동의 받아 이들 주거지역을 모두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키는데성공하였다. 이로써 코리아타운 상가발전에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그 다음은 상가발전에서 방범문제였다. 그의 숙원사업은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김 박사는 한인들이 미국경찰의 기동순찰 방법보다는 파출소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을 시정부에 주지시켜 LA 경찰국 역사상 최초의파출소를 코리아타운 8가에 설치하게 하였다.

또한, 미주류사회에 코리아타운을 인지시키기 위해 10번 프리웨이 코리아타운 출입구에는 운전자들이 한인타운 지역이란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Koreatown>이란 표지판을 고속도로 상에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시정부는 안내표지판을 코리아타운 고속도로 출입구 마다 부착하였다.

김진형 회장은 커뮤니티 봉사자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부 커미셔너를 맡아 18년간, LA 경찰국의 경찰허가 심사 커미셔너를 맡아 13년 동안 헌신했다. 이 같은 그의 공헌을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인정해 지난 1984년 5월 24일 로스앤젤레스시와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큰 공을 세운데 대하여 '미국 국회 하원의 의사록'에 그의 공덕을 등재한바 있다.

민병용 관장은 발간사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40여년 신문기자와 이민역사가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리아타운을 만든 역사와 45년의 성장역사 그리고 1974년 한국의 날 축제를 시작한 이야기를 책임 있게 써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초창기 한인사회 및 코리아타운의 역사 기록을 수집하고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시정부가 김진형 '코리아타운번영회' 초대회장과 함께 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을 건설하는 일을 해온 옛 회의록 , 그리고 사진, 신문기사를 찾으면서 퍼즐이 하나하나 풀려 나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1980년 12월8일 코리아타운 구역 결의안 통과 기록을 찾으면서 보람이 가장 컸습니다. 그후 역대 시의원 , 도시계획국 City Planner, 미국 연방하원의원 비서실장을 차례로 인터뷰 하면서 이 책을 자신있게 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리아타운 건설의 주역이자 코리안 페스티벌 창시자인 김진형 명예회장의 생생한 인터뷰와 증언 그리고 소장해 온 자료가 코리아타운 역사 기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제41회 LA한인축제가 개막된 2014년 9월 18일 LA 시의회(시장 허브 웨슨)는 코리아타운 올림픽경찰서 (서장 티나 니에토)에서 '김진형 광장' 명명식을 가진 직후 한인타운 중심부 올림픽-버몬트 교차로에서 표지판 공개행사를 진행했다. LA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2013년 김진형 박사에 대한 'Dr. Gene Kim Square' 명명 조례안을 웨슨 시의장과 미치오 파렐시의원의 공동발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한바 있다.

이날 허브 웨슨 LA 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김진형 박사는 LA 한인사회의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LA시 발전에 공헌위대한 시민"이라며 "특히 LA 한인축제를 창시하고 한인타운 지역이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되는데 앞장 서 왔다"며 "매일 수만명의 시민들이 이 교차로를 지나며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형 박사는 "이런 영예를 준 LA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다민족이 어울려 다양성을 이뤄 나가는 미국사회 발전에 계속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켄차 '한미커미셔너협회장'은 "김진형 박사님을 빼놓고 코리아 타운을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1980년 12월 8일 Koreatown 구역안 시의회 통과

****
Office of the City Clerk, City of Los Angeles

This report was generated by the Council File Management System on 07/29/2016
****

Council File Number
80-5980

Title
80-5980

Subject
Motion Ccl initiate the Korea Town Specific Plan and authorize to employ one additional City Planning Associate until 6-30-81 to be assigned to this rpoject and funded through identified salary savings

Last Change Date
01/01/1975

Mover
DAVE CUNNINGHAM

Second

Archive History

11-24-80 This Days Ccl Session - Ref to P&E Comt
11-24-80 - Ref to P&E Comt
11-26-80 - File to Zev Charmn
12-8-80 P&E Comt Report adopted Cunningham Mo that recognizes contribution that Kirea City Inc will make to the Planning Process and hereby approves of document entitled Korea Town Specific Plan Work Program
12-8-80 - File to Planning Dept
11-16-81 - File in files
12-3-84 - File to Justis - Planning - Ext 3744

코리아타운 규제 완화 및 경계지역 확정을 위한 Koreatown Specific Plan이 1980년 12월8일 LA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김진형 회장은 사비 5만달러를 한인2세 건축가 David Hyun에게 주었고, 그가 만든 코리아타운 구역안을 David Cunningham 제10지구 시의원이 통과시켰다. 당시의 LA시의회 공식 기록 문서이다.

LA County's Senior Welfare Commissioner Dr. Gene Kim's 70th's Birthday celebration photo cards from the Office of LA County President Yvonne B. Burke.

김진형 LA County 정부 노인복지 커미셔너의 70회 고희 생신에
선물로 보내온 LA카운티 이반 버크(Yvonne B. Burke) 의장과
전 비서진이 사진 위에 축하의 글을 써서 보내 온 생일 축하장

한인 역사박물관
Korean American History Museum

었다. 김진형 회장의 희생적 노력이 이루어 낸 코리아타운 형성의 쾌거였다.

코리아타운의 거리에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업소들도 활기를 띠었으며 빈 가게가 없고 새로운 상점들이 속속 들어서자 막노동을 할 남미계 일꾼들이 코리아타운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들과 함께 범죄도 따라 왔다. 이제 코리아타운에서 범죄예방은 큰 잇슈로 등장하고 모두는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오늘의 코리아타운은 김진형 회장이 만들었다"

King H. Woods 전 LA도시계획국 Senior Planner 인터뷰

이 책의 저자로 코리아타운 형성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1980년에 Koreatown Specific Plan을 LA시 도시계획국 공무원으로 담당을 했던 King H. Woods 씨를 2017년 1월27일 직접 인터뷰를 했다.

2017년 1월27일 한인 역사박물관 사무실에서 인터뷰한 킹 우즈씨. 우즈씨는 경계 구역을 LA 시의회에서 지정하기 위하여 Koreatown Specific Plan을 검토한 당시 LA시청 도시계획국 시니어 프래너였다. 코리아타운 경계안은 1980년 12월8일 LA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질문 : 오늘의 Koreatown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달라.

답변 : 로스앤젤레스시 안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타운이다. 구획과 상업성 등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다. 앞으로 더욱 성장될 것이다.

질문 : 김진형 전 코리아타운번영회 회장을 언제부터 친하게 지내왔는가?

답변 : 1980년이다. 코리아타운 구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LA시청에 자주 오갈 때였다. Koreatown Specific Plan을 기획하고 만드느라고 열심히 뛰어 다녔다. 그당시 먼 미래를 위해 코리아타운을 내다보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질문 : 코리아타운을 만들 때부터 오늘을 설명해 달라.

답변 : 처음 유원건설에서 웨스턴가 Ralphs Market 자리를 잡았다. 20층을 지으려

LA시 도시계획국 공무원으로서 Koreatown Specific Plan 기획을 담당 했던 King H. Woods 씨 인터뷰

이 책의 저자로 코리아타운 형성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1980년에 Koreatown Specific Plan 을 LA시 도시계획국 공무원으로서 이를 담당 했던 King H. Woods 씨를 2017년 1월27일 직접 인터뷰를 했다.

질문 : 오늘의 Koreatown 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해 달라.

답변 : 로스앤젤레스시 안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타운이다. 구획과 상업성 등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있다. 앞으로 더욱 성장될 것이다.

질문 : 김진형 전 코리아타운번영회 회장을 언제부터 친하게 지내왔는가

답변 : 1980년이다. 김진형 회장이 코리아타운 구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LA시청에 자주 오갈 때였다. Koreatown Specifie Plan을 기획하고 만드느라고 열심히 뛰어 다녔다. 그당시 먼 미래를 위해 코리아타운을 내다보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LA 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날 축제 - 저자, 민병용 '한인 역사박물관' 관장]

Interview with King H. Woods, a official of Ci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City Planning who was in charge of the Koreatown Specific Plan.

The author of this book interviewed King H. Woods on January 27, 2017, who was in undertaking on the Koreatown Specific Plan in 1980 as an official of Ci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City Planning to find out historical back grounds for the formation of Koreatown.

Q: Please tell me how you felt about today's Koreatown.

A: It is the most proud and successful town in Los Angeles. The administrative district compartments organized as good for accommodating and the area prepared good for commercially effective. Therefore, the Koreatown will be growing much more.

Q: How long have you been knowing with Gene Kim whom is the chairman of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A: Since 1980. It was time when Gene Kim visited frequently at the Los Angeles City Hall to the Koreatown. kim worked hard to make a plan and appealing on the Koreatown Specifie Plan to the City of Los Angeles. He had a positive vision as a wonderful dream to the Koreatown's on going prosperity.

("LA Koreatown and Korean Day" Author, Min Byung-yong, Director of Korean History Museum)

한국의 날 2019 사진전시 기사 자료 - Dr. Kim Gene-hyoung

Friday, March 30, 2007 한국일보

"김진형 · 유분자씨 이승만 사업회 애국자상"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 미주총회 (회장 이희덕)는 지난 25 일 서울국제공원 체육관에서 열린 이승만 박사탄신 132 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인타운 올드타이머인 김진형 LA 카운티 커미셔너와 유분자 전 간호협회장에게 제 1 회 애국자상을 수여했다.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이희덕 (오른쪽) 회장이 김진형 커미셔너에게 애국자상을 수여하고있다.

Friday, March 30, 2007 [Koreatimes]

"Kim Gene-hyoung, Ryu Boon-ja awarded as Patriot Award at the Dr. Syngman Rhee Project"

South Korea's First President Dr. Syngman Rhee's annual meeting of the United States (Chairman Lee Hee-duk) was held on March 25. At the Dr. Syngman Rhee's 132th anniversary at the Seoul International Park Gymnasium.

The first Patriot Award was given to the LA County Commissioner Kim Gene-hyoung, a Koreatown's old timer, and Ryu Boon-ja, a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n Nursing Association. Lee Hee-deok(right), who is Dr. Syngman Rhee's commemorative project. Lee Handed out its Award to Kim Gene-hyoung, whom is a LA County Commissioner.

한국일보 Friday, March 30, 2(

김진형·유분자씨
이승만 사업회 애국자상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 미주총회(회장 이희덕)는 지난 25일 서울국제공원 체육관에서 열린 이승만 박사 탄신 132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인타운 올드타이머인 김진형 LA카운티 커미셔너와 유분자 전 간호협회장에게 제1회 애국자상을 수여했다.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이희덕 (오른쪽) 회장이 김진형 커미셔너에게 애국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진형 벅사 광장' 시의회 동의안 번역문 - 만장일치로 통과됨)

2013년8월23일 13-1117 CD10

LA시정부 의회 동의안

김진형 박사는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있던 시절인 1933년 9월 29일 평양에서 존경받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진형 박사는 1968년 미국에 안착하여 허드렛 일을 시작하여 가족을 부양하다가 1971년에는 LA의 올림픽 선상의 킹슬리와 하바드 거리 사이에 한국서적센터 상점을 개점하였다. 이어 그는 코리아타운번영회란 단체를 창설하고 1974년에는 코리아타운 축제 퍼레이드를 창시하였다.

김 박사는 코리아타운 안에서 많은 상점들에게 한글과 영어로 된 이중 언어 간판달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을 교섭하여 교수들이 코리아타운에서 한인이민1세들에게 생활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으며 LA시정부에 요청하여 한국의 날을 제정하게 하였고 코리아타운의 경계를 LA 시정부가 공식화하게 승인을 받았다. 이어 그는 코리아타운 특별 플랜을 시정부에 제출하여 코리아타운 내의 올림픽 후편 주거지역을 일시에 상가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성공하여 코리아타운 상가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또 코리안의 파출소 문화의 변으로 코리아타운에는 경찰관 파출소를 설립하게 하였고 코리아타운이란 지역 표시 간판을 고속도로 출입구에 세우도록 요청하여 시정부가 이를 받아드렸다.

1984년5월24일에는 미국 국회 하원에서 김 박사의 헌신적인 커뮤니티 리더로서의 공덕을 인정하여 국회 의사록에 그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이 등재되었다.

김 박사는 그 후 로스안젤레스 카운티정부에서 노인복지국 커미셔너로 18년간 그리고 LA시 경찰 본청의 경찰허가담당 커미셔너로 13년간을 봉직하였다.

그간 코라아타운 발전에는 물론 수 많은 리더들이 열심히 봉사하여 코리아타운을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한 사람들이 많지만 김 박사는 1972년부터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40여년을 한결같이 헌신한 사람은 바로 김 박사라는 것을 LA시는 인정한다.

김박사의 이러한 훌륭한 공덕을 그가 창시한 코리안 퍼레이드의 40주년 기념을 마지하여 시정부는 포상하기로 한다. 그 포상은 바로 올림픽 거리와 버몬 거리의 교차점 광장을 "김진형 박사 광장(Dr. Gene Kim Square)"이라고 명명하여 그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올림픽 거리와 버몬 거리의 교차점 광장에 "Dr. Gene Kim Square"라는 기념비적인 간판을 교통국에서 세워줄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동의 제10지구 시의원: 허브 웨슨 주니어(LA 시의장) 서명
재청 제13지구 시의원: 미치 오패럴 서명

13-1117
CD10

PUBLIC WORKS & GANG REDUCTION

AUG 23 2013

MOTION

Dr. Gene H. Kim was born on September 29. 1933 in City of Pyong Yang to a prominent and well-respected family at a time of Japanese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pon Arriving in the U.S. in 1968, Dr. Kim initially worked various odd jobs to support his family and in 1971 he opened a small bookstore on Olympic Boulevard between Kingsley and Harvard Avenues called "Korean Book Center." The following year Dr. Kim founded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and in 1974 under his leadership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staged its first "Koreatown Festival and Parade."

Dr. Kim was also instrumental in the campaign for English-Korean dual language signs on businesses in Koreatown, the locating of CSULA Koreatown extension classes to teach English to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the designation of "Korea Day" by the City of Los Angeles, the official designation of the "Koreatown" area of Los Angeles as well as the adoption of the Koreatown Specific Plan,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LAPD Koreatown sub-station, and the installation of a Koreatown sign on the Santa Monica Freeway.

On May 24, 1984. Dr. Gene H. Kim recognized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 recognition of his many outstanding contributions and accomplishments for the benefit of people of Los Angles and for exemplifying outstanding leadership as a Korean American community leader of Southern California.

Dr. Kim also served for 18 years as a member of Los Angeles County Commission on Aging, and as a commissioner on the Los Angeles Police Permit Review Panel for 13 years.

There have, no doubt, been many leaders who have lent their capable leadership, unyielding passion, extraordinary vision and outstanding talents in making all the achievements of Koreatown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Los Angeles. However, Dr. Gene Kim uniquely stands alone for having been a constant and unceasing leader and a guiding presence for the past 40 years from the very start in 1972.

In recognition of Dr. Gene Kim's remarkable service to the community, and in marking this year the 40th anniversary of founding of the Koreatown Festival and Parade, it is appropriate that the City honor him by naming the intersection at Olympic Boulevard and Vermont Avenue as "Dr. Gene Kim Square."

I THEREFORE MOVE that the intersection at Olympic Boulevard and Vermont Avenue be named as **"Dr. Gene Kim Square,"** and that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be directed to erect permanent ceremonial sign(s) to this effect at this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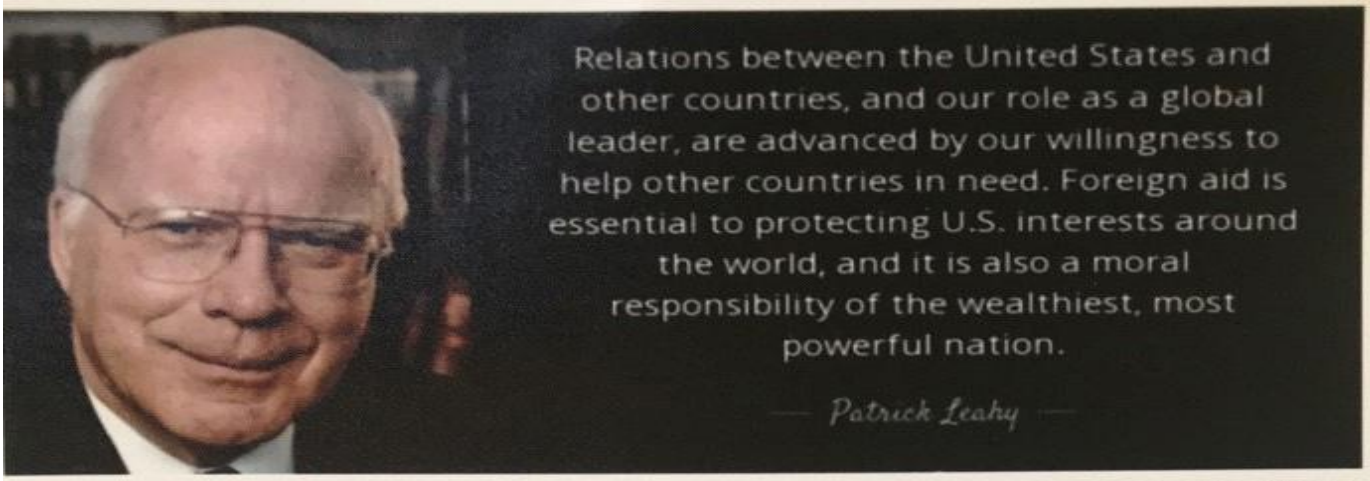
PRESENTED BY: _____
HERB J. WESSON, Jr.
Councilman, 10th District

AUG 23 2013

ak

SECONDED BY: _____

ORIGINAL



아래 서한은 LA 시정부가 코리아타운 형성의 주역인 김진형 박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코리아타운 입구에 '김진형 박사 광장 (Dr. Gene Kim Square)'을 설치하자 이의 동조의 뜻을 표시하며 축하장을 보낸 Patrick Leahy 상원 의원(전 상원의회 의장) 편지

PATRICK J. LEAHY
VERMONT
PRESIDENT PRO TEMPORE

U.S. Capitol Building
Suite S-125
Washington, D.C. 20510
(202) 224-9400
(202) 224-3593 FAX

United States Senate

October 6, 2014

Dr. Gene H. Kim
2011 West Katella Avenue
Anaheim, CA 92804

Dear Dr. Kim,

I join with the people of Los Angeles and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honoring you for your 42 years of outstanding service on their behalf.

As a community leader, you have been instrumental in many key campaigns relating to Korean-American identity and prosperity. These include the designation of "Korea Day" by the city of Los Angeles, the official city designation of a Koreatown area, and the locating of CSULA Koreatown extension classes to teach English to first generation immigrants. Most impressive of all is the Koreatown Festival and Parade, which your organization began in 1974. Now in its 41st year, it has grown into one of the largest ethnic celebrations in the nation and serves as a unifying event for the entire community.

On May 24, 1984, your name was read into the Congressional Record in recognition of your contributions, accomplishments, and exemplary community leadership. This recognition remains pertinent today.

It is appropriate that the Los Angeles County City Council has designated the intersection of Olympic Boulevard and more importantly, Vermont Avenue, as "Dr. Gene Kim Square." Congratulations on your personal successes, and on the continued success of your many programs and initiatives. America owes her vibrant spirit to leaders like you.

Sincerely,

PATRICK LEAHY
United States Senator

Proud of you.

Police officers are celebrating that the City of LA has named the intersection of Olympic and Vermont streets as Dr. Gene Kim Square

LAPD 경찰허가 담당의 커미셔너였던 김진형 박사의 코리아타운 개척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L A 시정부가 Olympic 거리와 Vermont 거리의 교차점 광장을'김진형 박사 광장 (Dr. Gene Kim Square) '이라 명명한 것을 경찰관들이 함께 축하하고있다.
(사진,남가주 사진작가협회 회장 김상동)

To commemorate Dr. Kim Gene-hyoung who is pioneering Koreatown, a Commissioner for the LAPD Police Permit Review Panel, Police officers are celebrating that the City of LA has named the intersection of Olympic and Vermont streets as Dr. Gene Kim Square. (Photo courtesy of Kim Sang-dong, Chairman of Southern California Photographers Association)

LAPD 경찰허가 담당의 커미셔너였던 김진형 박사의 코리아타운 개척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LA시정부가 Olympic 거리와 Vermont 거리의 교차점 광장을
'김진형 박사 광장(Dr. Gene Kim Square)' 이라 명명한 것을 경찰관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회장 김상동>

발간사

인간 김진형의 세계관이 코리아타운을 만들다

민병용 한인 역사박물관 관장

민병용 관장

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쓸 때에는 더 더욱 그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40여년 신문기자와 이민역사가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리아타운을 만든 역사와 45년의 성장역사 그리고 1974년 한국의 날 축제를 시작한 이야기를 책임있게 써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초창기 한인사회 및 코리아타운의 역사 기록을 수집하고 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시정부가 김진형 코리아타운번영회 초대회장과 함께 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을 건설하는 일을 해온 옛 회의록, 그리고 사진, 신문기사를 찾으면서 퍼즐이 하나하나 풀려 나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1980년 12월8일 코리아타운 구역 결의안 통과 기록을 찾으면서 보람이 가장 컸습니다. 그후 역대 시의원, 도시계획국 City Planner, 미국 연방하원의원 비서실장을 차례로 인터뷰 하면서 이 책을 자신있게 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리아타운 건설의 주역이자 코리안 페스티벌 창시자인 김진형 명예회장의 생생한 인터뷰와 증언 그리고 소장해 온 자료가 코리아타운 역사 기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교를 자료 수집을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한서대학교 박물관에는 김진형 명예행정학박사의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는 코리아타운번영회 김진형 초대회장이 평생 수집하여 온 물건들과 코리아타운을 만들기 위해 일해온 주요 서류, 사진, 책 상패 등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의 뜻있는 인사들의 도움없이는 이 책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편집의 그레이스 민, 사진의 하워드 민, 우리 가족의 도움 역시 컸습니다.

처음으로 펴내는 역사서로 화보집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읽고 코리아타운과 한국의 날 축제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큰 계기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10일

"The worldview of human being Kim Gene-hyoung creates Koreatown"

by Min Byung-yong (Director, Korean-American History Museum)

Writing comes with responsibility. And even more so heavily when a writer is writing about history books.

As I've been a journalist in commitments on Korean immigration history in America, I had one thing to do. It was responsibility to write about the history of Koreatown in Los Angeles, as of its 45 years of growth, and the story of the beginning 'Korean Festival' in 1974. Now that dream has come true. Because of such an early days, collecting records and writing about historical Korean society and Koreatown was much more difficult than I thought.

However, the puzzles has been solved one by one in searching for the old 'minutes of meetings', photographs, and outdated newspaper articles, in which the City of Los Angeles officially worked with Kim Gene-hyoung as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s first president.

After an effort, I found an official record of 'the Koreatown District Resolution' approved by the Los Angeles City Council on December 08, 1980. That was the most rewarding thing. Gradually, I can do confidently publishing this book by interviewing with several City of LA's Council members, and City Planners, and also with the Office of US Congressional Record's Secretary General.

Due to lots of lively interviews, testimonies with Kim Gene-hyoung, this recored became an appraisal standard of historical records of Koreatown. Thanks for honoring Dr. Kim Gene-hyoung, as the founder of Koreatown and the founder of the Korean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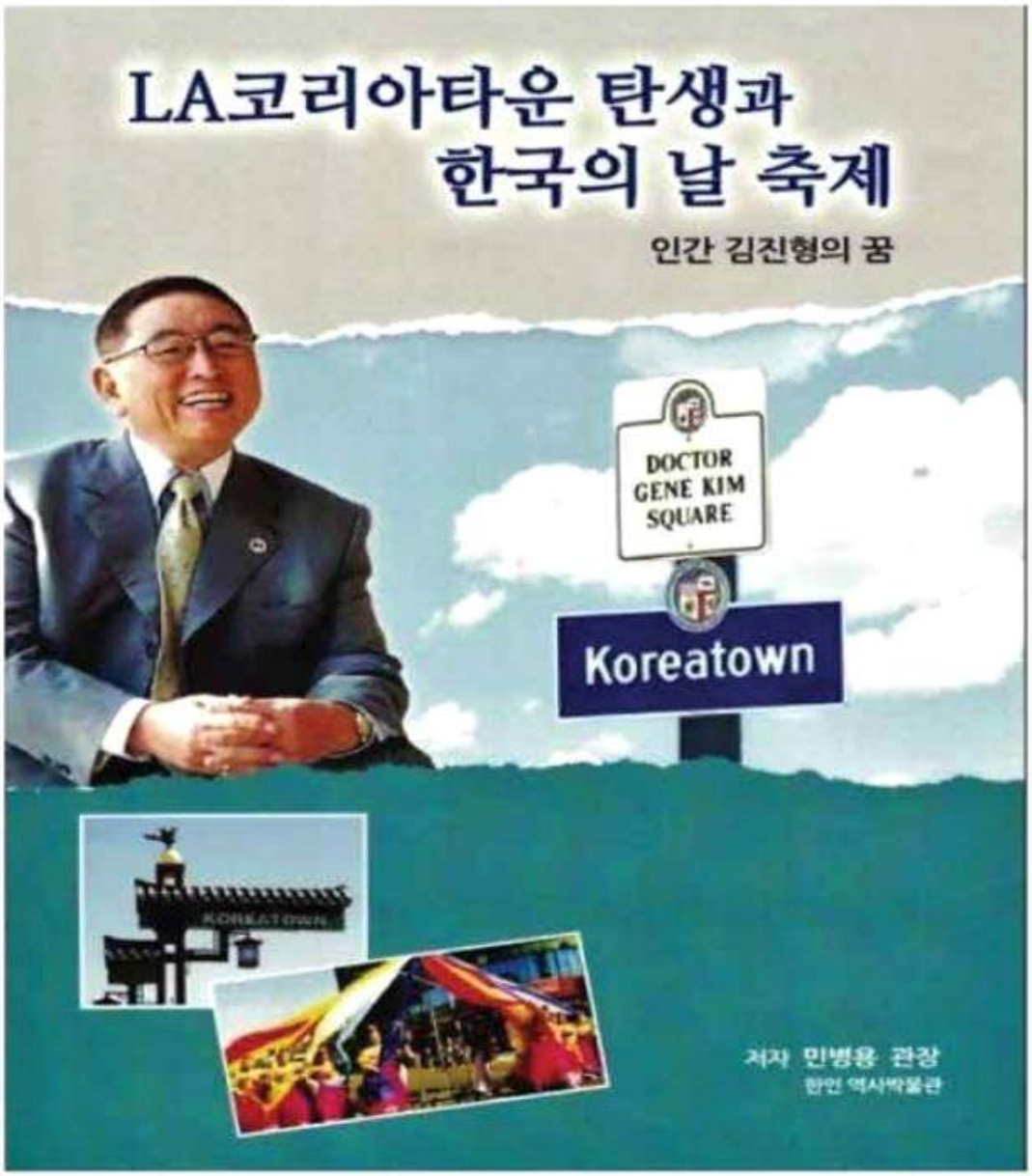
For collecting data, I visited the Hanseo University at Seosan province in Korea. Where the Hanseo University Museum has an exhibition hall of the Honorary Doctor in Administrations for Dr. Kim Gene-hyoung, as the first chairman of the Kore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and contributed to forming Koreatown in foreign country. there are many of proven documents, photos, books, and plaques.

And most of all, this book couldn't come out without the help of meaningful people in the Los Angeles Korean community. Special thanks to Grace Min in editorial, Howard Min in photography, for helping out. This is my first publication of pictorial history book. Because, it has focused to anyone reading it comfortably and to provide a momentum to prospering Koreatown and loving Korean Festival even more.

Thank you. (September 10, 2017)

"The Dream of Human Being Kim Gene-hyoung"

This book is written by Min Byung-yong (Director, Korean-American Historiography Museum at Los Angeles) The title is "Formation of Koreatown and Launching Korean Festival" Subtitle: "The Dream of Human Being Kim Gene-hyoung" is the cover of the booklet (2017-9-29)



LA한인역사박물관 민병용 관장의 저서로 'LA코리아타운 탄생과 한국의 날 축제'란 제하로 LA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을 기술한 역사 기록 서적이다. 부제는 '인간 김진형의 꿈' ☞ 사진은 책자의 표지(2017-9-29 발간)

발행처: 한인 역사박물관 Korean American History Museum

[증정용 – 비매품 Not for Sale]